

자료제공 : 2023. 7. 28.(금)

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할 수 있습니다.



보도자료

푸른도시여가국 동물보호과

담당부서 :

자연생태과

사진없음 사진있음 쪽수 : 4 쪽

동물보호과장	이미숙	2133-7645
동물보건팀장	배진선	2133-7651
자연생태과장	한정훈	2133-2141
자연자원팀장	고안자	2133-2156
관련 누리집 (메뉴)	https://animal.seoul.go.kr/	

서울시, 동물보호센터 개·고양이 전수 검사 결과 전부 A 음성

- 서울시·구 동물보호시설 19개소 개, 고양이 조사결과 102마리 모두 A 음성
- 발생지 반경 10km 내 조류시설, 동물원, 고양이카페 등 430곳 예찰결과 이상없음
- 동물보호소에 있던 고양이 2마리는 음성판정 후 시동물복지지원센터로 옮겨 보호중
- 야생조류 폐사체 예찰 강화, 동물사체 발견 시 바로 해당 자치구에 신고
- 시, 손씻기 등 개인위생에 힘써줄 것을 당부하며, 정부와 협력하여 방역에 총력

- 서울시가 지난 7월 25일 고양이 보호소의 고양이 2마리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(H5N1형)가 발생함에 따라, 동물보호시설에 있는 개와 고양이를 대상으로 A 전수 검사를 실시한 결과, 검사한 102마리(개 57마리, 고양이 45마리) 모두 음성이 확인되었다고 밝혔다.
- 전수검사는 시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서울시와 자치구에서 운영하는 동물보호시설에 대해 선제적으로 모든 개와 고양이를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,



<서울동물복지지원센터 고양이 AI 검체 채취 현장>

- 서울시는 발생지 반경 10km에 있는 조류시설, 동물원, 동물카페 등 430개소에 대해서도 긴급히 임상 예찰을 실시하였고 현재까지(17시 기준)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증상을 보이는 개체는 없었다.
- 아울러,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(H5N1형)가 발생한 동물 보호 장소에 있던 고양이 2마리는 시 보건환경연구원이 7월 25일 실시한 AI 검사 결과에서 음성으로 판정되어, 서울시 동물복지지원센터로 옮겨 보호 관리 중이다. 고양이 2마리는 모두 임상증상 없이 건강한 상태이다.
 - 서울시 동물복지지원센터는 코로나19에 감염된 반려동물을 격리 보호했던 곳으로 별도의 환기와 보호시설을 갖춘 격리시설이다.
- 시는 동물 관련 시설 등에서 동물을 돌볼 때에는 마스크, 장갑 등 개인 보호장비를 착용하고, 동물을 만지고 나서는 손씻기를 통해 과도한 불안보다는 개인위생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.
- 또한, 시는 야생조류 폐사체에 대한 예찰도 강화하고 있으며, 시민들도 야생조류 폐사체를 발견하면 만지지 말고 해당 자치구에 바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.

- 서울시 유영봉 푸른도시여가국장은 “보호시설 동물을 전수 검사한 결과 모두 음성이었다” 며 “앞으로도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여 시민과 동물을 위한 방역에 최선을 다하겠다”고 말했다.

붙임 : 생활 속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 예방 안내(농림축산식품부)

- 손을 자주 씻고, 손으로 눈, 코, 입을 만지는 것을 피하십시오.
 - AI는 주로 감염된 조류 등의 분변, 분변에 오염된 물건 및 사체 등을 손으로 접촉한 후에 눈·코·입 등을 만졌을 때 바이러스가 전파될 수 있습니다.
 - 드물지만 오염된 먼지의 흡입을 통한 감염도 가능합니다.
- 야생조류, 가금류, 고양이 등 사체에 접촉하지 마십시오.
 - 건강 상태를 확인하기 어려운 야생조류 및 길고양이의 경우 사체, 분변 등을 만져서는 안되며 가급적 접촉하지 마십시오.
- 가정 내에서 고양이나 새를 키우는 경우는 조류인플루엔자에 감염될 가능성이 사실상 낮습니다.
 - 그러나 이 경우에도 고양이 등에게 활동량 저하·많은 양의 침 흘림, 기침과 재채기, 숨가쁨 및 신경학적 증상 등이 나타날 경우, 마스크·장갑 등 보호장비를 착용하여 접촉하고 직접적인 접촉은 금지하여 주십시오.
- 국내·외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시설 및 지역 등에 방문하여 동물과의 접촉 후 10일 이내 발열, 기침, 인후통 등 호흡기 증상이 발생하면 즉시 관할 지역 보건소 또는 질병관리청 콜센터(1339)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.
 -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는 마스크를 쓰시고, 기침, 재채기를 할 경우는 휴지로 입과 코를 가리고 하십시오.